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연구

김 용 현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 책임연구원
kyhyun363@cni.re.kr

저출산 현상은 총체적인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으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로 젊은 세대들의 결혼, 출산·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한 몫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는 계룡시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및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음

CONTENTS

1. 서론
2. 계룡시 인구현황 및 인구구조 분석
3. 저출산의 원인과 인식개선
4. 타 지역 사례연구
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6. 홍보문구

요약

- 2018년도 합계출산율 첫 0명대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함
- 2017년도 기준, 계룡시 합계출산율은 1.44명으로 전국 합계출산율(1.05), 충남 합계출산율보다 높은 편이지만 2016(1.66)보다는 감소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성장둔화를 야기시키는 등 이미 시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저출산현상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노동생산성 저하,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총체적인 사회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나 청년들에게는 출구 없는 실업문제,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출산을 꺼리고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여성에게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들어 결혼과 출산·양육에 부정적임

0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18년도 합계출산율 '첫 0명대 진입' 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05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저출산 트렌드는 비단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흐름으로, 충청남도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28명임 (2017년 처음으로 출생아수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짐)
 - 충남도의 최근 5개년 합계 출산율은 전국(2016년 기준 충남 1.40, 전국 1.17)보다 높지만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하락했음을 알 수 있음
 -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 1.30이하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2040년까지 연평균 -0.31% 감소함
 - 2017년 기준, 계룡시 합계 출산률은 1.44로 전국 합계출산율(1.05), 충남 합계출산율(1.26)보다는 높은편이지만 2016년(1.66) 보다는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여러 가지 문제가 맞닿아 있는 복합적인 증층 구조의 문제임
 -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1.7명 사이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시 급감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먼저, 청년들에게 출구없는 실업문제, 높은 집값 때문에 결혼·출산을 꺼리고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고 있음

- 여성에게는 출산, 육아기에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특히 여성들의 경우 경력단절 없이는 일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절대 부족함
 - 저출산 문제에는 교육의 문제도 한 몫하고 있음. 자녀의 초·중·고 학령기엔 높은 사교육비, 대학을 나와도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재 반복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출산·양육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키우는 것이 즐거움 보다 걱정이 앞서는 일이 됨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사회의 성장둔화를 야기시키는 등 한국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된다면 70년 뒤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저출산현상 지속은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노동력 공급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 및 노동생산성 저하
 - 사회보장재정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위기 우려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전반의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 개인의 조세제도 증가 및 사회보장 혜택 축소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저하
 - 개인적으로 노부모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의 사적 부양부담 증가 및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원하는 자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삶의 질 저하
-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결혼기피, 만혼 결혼, 출산 후의 양육부담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고 있음
 - 따라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특히 젊은층을 상대로 결혼 및 양성평 등에 인식개선이 필요함
-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초저출산탈피(출산율 1.5명), 노인빈곤 완화(노인빈곤율 39%)의 목표에 맞추어 계룡시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과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음
- 계룡시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인식개선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본 연구의 목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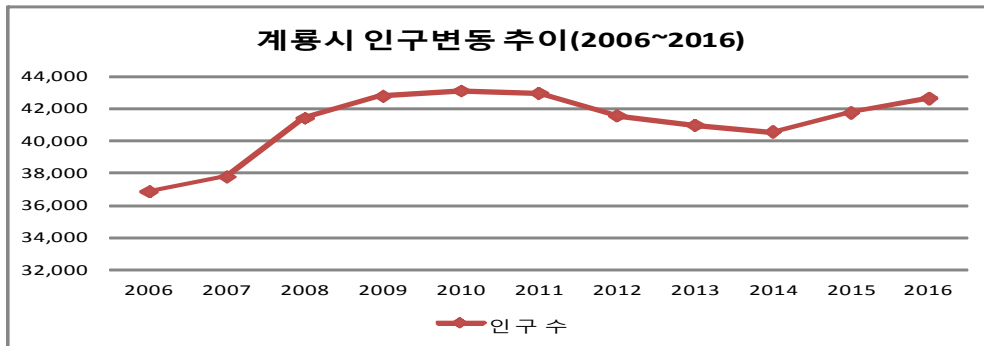
02

계룡시 인구현황 및 인구구조 분석

- 2016년 계룡시 합계출산률은 1.66명으로 전국합계출산율(1.17), 충남 합계출산율(1.39)보다는 높은 편임
 - 이는 공동주택 입주 등 전입인구가 늘어 가임여성수, 출생아수, 합계출산율이 동반 상승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산율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최근 10년간 계룡시 인구현황을 보면 2011~2014년간은 신도안면 군인아파트 재건축으로 인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음
 - 2015~2016년에는 군인아파트 재건축 및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가 증가함
 -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룡시 인구증가를 유도할 출산율제고, 2020세계軍문화엑스포 개최, 대실지구 개발사업, 이케아 유치, 산업단지 분양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성장개발요인이 필요함
- 계룡시 인구수 변동 사항 (2006~2016)

년도 (12월말)	세대수	인구수			증감		65세 이상 인구
		합계	남	여	세대	인구	
2006	12,259	36,846	18,238	18,608	-	-	3,174
2007	12,583	37,775	18,692	19,083	324	929	2,539
2008	13,755	41,411	20,388	21,023	1,172	3,636	2,772
2009	14,216	42,760	21,152	21,608	461	1,349	2,917
2010	14,417	43,088	21,322	21,766	201	328	3,055
2011	14,381	42,942	21,321	21,621	-36	-146	3,151
2012	14,017	41,550	20,633	20,917	-364	-1,392	3,203
2013	13,954	40,957	20,304	20,653	-63	-593	3,292
2014	13,894	40,552	20,118	20,434	-47	-405	3,446
2015	14,397	41,730	20,703	21,027	81	1,178	3,595
2016	14,858	42,634	21,148	21,486	-11	904	3,847

출처 : 계룡시 내부자료(2018)



출처 : 계룡시 내부자료(2018)

● 계룡시 인구구조 특성

1) 연령대별 인구비율

- 2015년 평균연령이 36세, 2016년 37.8세였으나 점점 높아져 2025년에는 42세로 예상됨
-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9%로 고령사회(노인인구 14%)보다는 낮으나 베이비붐 세대(1955~1964년생)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으로 진입을 시작하여 2020년부터 고령화가 가속화 되어 2030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생산가능인구(15~64세)로의 신규 유입이 되지 않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충남연구원의 도내 인구변화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3.3% 인구가 증가 하였으며, 2016년 시군 소멸위험 지수에서 '정상' 단계로 충남 시군 중 천안, 아산에 이어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로 파악됨

● 충남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2040년도 계룡시의 인구추계를 수행하였음(충남연구원, 2016)

충남연구원 2040 인구추계-계룡시						
◎ 고령화지수 (단위 : %)						
년도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고령화지수	8.51	12.16	17.82	24.29	30.80	36.81
◎ 평균연령의 변화 (단위 : 세)						
년도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평균연령	36.08	39.35	42.28	45.14	47.95	50.53
◎ 인구 부양비의 변화 (단위 : 명)						
년도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부양비	37.87	40.48	47.78	59.70	76.28	93.73
※ 부양비 : 생산가능 인구(15~64세) 1명이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와 노년 인구를 의미함						

출처 : 2016.06 충남리포트

● 계룡시 인구이동

- 2016년 1~2월은 군인사이동, 학교 입학기로 인해 타 지역 및 관내 면·동에서 신도안면으로의 전입이 증가함
- 2016년 10월은 공동주택 입주로 엄사면 전입 증가하였고, 12월은 군인사로 신도안면 전출이 증가함

계룡시 인구통계

◎ 연령대별 인구(2016년도)

(단위 : 명)

항목	합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총인구	42,634	4,723	6,898	4,750	5,567	8,928	6,004	3,093	2,671
남자	21,148	2,414	3,576	2,597	2,649	4,361	3,073	1,527	951
여자	21,486	2,309	3,322	2,153	2,918	4,567	2,931	1,566	1,720
총인구 대비(%)	100.0	11.1	16.2	11.1	13.0	20.9	14.1	7.3	6.3

◎ 가임여성수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15~49세 여성인구수	11,055	11,319	11,480	

◎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비 고
합계출산율(%)	1,324	1,305	1,661	가임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
출생아수(명)	320	307	383	

◎ 인구이동(2016)

월별	전입(명)	전출(명)	순이동(명)	비고
1월	1,340	1,090	250	
2월	1,539	1,294	245	
3월	866	859	7	
4월	528	492	36	
5월	532	453	79	
6월	505	455	50	
7월	403	431	-28	
8월	523	500	23	
9월	406	426	-20	
10월	566	457	109	
11월	517	508	9	
12월	812	926	-114	

출처 : 계룡시 내부자료

03

저출산의 원인과 인식개선

- 2016년 통계청이 발간한 자료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13세 이상 여성의 비율은 2010년 59.1%에서 2016년 47.5%로 감소함(통계청, 2016)
 -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결혼기피, 만혼결혼, 출산 후의 양육부담을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꼽고 있음
- 이삼식·이지혜(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05~2013년 기간 중 20대와 30대의 유배우출산율이 모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유배우율(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비율)낮아졌기 때문임(이삼식 외, 2014)
 - 즉,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이 낮아졌다기보다는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현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음
 - 청년층(20~39세)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어지고, 가정을 꾸리기 보다는 혼자 살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에는 청년층에 대한 결혼 지원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주택 마련 자금 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사회·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하지만, 실제로는 취업자인 경우에도 결혼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남성38.2%, 여성 57.4%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라 할지라도 결혼에 대하여 적극적 의사를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이삼식 외 2014)
- 따라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조건의 개선과 병행하여, 미혼 남녀들이 결혼에 대해 인식과 출산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본 필요가 있음

- 최근 우리 청년들의 결혼관 (차우규, 2014)
 -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위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할 수도 있다’
 - ‘독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
 -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해야 결혼할 수 있다’

- 최근 우리 청년들의 출산 자녀관 (차우규, 2014)
 - ‘결혼은 원하지만 자녀는 원치 않는다’
 - ‘결혼 전 혹은 동거 중에 낳은 자녀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 ‘산모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생긴 태아. 건강하지 않은 태아는 언제든 낙태할 수 있다’

- 결혼·출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결혼하고 출산하면 일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기 쉽지 않고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 후 경력단절이 되기 쉽다는 불안감이 팽배함
 - 결혼하면 남들에 뒤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 자녀가 경쟁에 도태되면 안된다는 책임감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 여성에 편중된 가사·육아 문화, 남성에게 요구되는 가부장적 책임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에 대해 회의감 증가

- 최근 청년들의 품고 있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시사점
 - 전통적인 가족관과는 달리 최근 청년들은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음.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직접적인 결혼, 출산의 장려보다는 우리 사회의 변모된 결혼관을 변화시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줄이고 부부의 사랑에 기반한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는 인식개선이 요구됨

04

타 지역 사례연구

● 해남군 사례

- 해남군은 출산장려 정책으로 관내 기관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1박2일 만남의 장을 만든 '땅끝 솔로 탈출 여행', 정책 시행 중임
-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유도하는 '땅끝 아빠캠프', 모든 지역주민까지 포용하는 '유모차 행진 음악회' 등 행사 개최 (베이비 뉴스, 전국 출산율 1위, 해남군일 수 밖에 없는 이유)

● 남원시 사례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미래 출산인구의 주체인 청소년들의 올바른 결혼관 정립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을 남원시 차원에서 실시중임(행정자치부, 우수 저출산 추진 지자체, 2016)
- 출산친화행사 신설 운영을 통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함 (행정자치부, 우수 저출산 추진 지자체, 2016)
- 흥부제와 함께하는 유모차 타고 행진,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공모 및 전시, 신생아 탄생 축하사진 게재및 기념용 액자 제작 증정 등이 바로 그것임(행정자치부, 우수 저출산 추진 지자체, 2016)

● 대구 달서구 사례

- '대구 달서구에 가면 결혼하기 쉽다' 라는 슬로건 하에 2016년 7월 전국 최초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대구 달서구는 가족의 소중함 제고 등을 목표로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만남, 결혼준비 등의 일련의 사업 준비함(미디어. 다운 넷. 2018. 대구 달서구에 가면 결혼하기 쉽다.)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결혼 인식문화 설문조사, 결혼전략 아카데미, 결혼을 주제로 한 2017 컬러풀 대구 페레이드 추진(스토리 퍼포먼스), 작은 결혼식 혼례 교육, 만나봄시데이 운영, 달서형 작은 결혼식 메카 구축 등이 있음

- 달서 결혼전략 아카데미를 통하여 미혼남녀 대상 결혼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연애키치에게 배우는 매력있는 사람이 되는 연애전략을 젊은 층에게 전수함 미디어. (다운 넷. 2018. 대구 달서구에 가면 결혼하기 쉽다.)
- 작은 결혼식 혼례교육은 작은 결혼식 혼례교육은 예비혼주 대상으로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위한 부모의 역할 교육
- 결혼친화 인식개선사업은 결혼 친화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과 청춘남녀 썸타는 동아리 등 다양한 결혼 프로젝트를 통해 결혼 가치관의 변화 추진
- 만나봄시데이 운영을 통하여 청춘남녀 매칭(만남) 행사, 사랑의 끈맺기 워크숍(공공기관 미혼 직원 대상), 청춘남녀 썸타는 동아리(취미모임 지원)를 운영하고 있음
- 달서형 작은 결혼식 메카 구축사업으로 공공장소 결혼식장 확대 개방(10개소), 결혼친화공원 조성, 웨딩플래너 양성과정 운영 등을 추진함
- 이밖에도 달서구는 민관협업 네트워크 사업으로 구청 종합민원실 내 맞춤형 결혼 상담실 운영,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관련 지원내용 리플렛 제작 배부하고 있음(미디어. 다운 넷. 2018. 대구 달서구에 가면 결혼하기 쉽다.)

● 보령시 사례

- 보령시는 결혼과 출산, 가정생활의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정책 인식개선을 위해 결혼공감 토크콘서트 ‘결혼은 미친짓일까?’ 라는 주제로 웨스토피아 동백홀에서 미혼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감 토크콘서트를 개최(매칭전략연구소, 2017)
- 결혼공감 토크콘서트 신청 대상은 보령시 거주 공공기관 및 기업체 근무자 중 24세 이상 45세 미만 직장인 미혼남녀임
- 결혼공감 콘서트는 전문 MC이자 인기 개그우먼 안소미를 섭외해 미혼 남녀의 결혼관 및 출산관 등 토크 콘서트, 대화 및 게임을 통한 커플 매칭 등으로 진행됨
- 이밖에도 보령시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관과 직장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도가 높고, 레크리에이션과 매력발산, 친밀감을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와인 파티, 동감 토크콘서트 등 다채롭게 구성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저출산 인식개선을 꾀하고 있음

● 인천시 사례

- 인천시는 ‘결혼하기 좋은 도시, 인천’ 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고 대한민국 제1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결혼친화도시’ 조성 구상을 최근 발표(경인일보, 2018)
- 인천시는 향후 76억원을 들여 ‘결혼인식 개선’ ‘만남준비’ ‘결혼장려’ 등 3단계 9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인천시는 우선 친가족적 가치관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초·중·고교 학생에게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교육할 방침임
-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월미도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 로 지정하고, 인천대공원 애인(愛仁)광장·동인천역 광장 등은 '프로포즈존' 으로 조성할 계획임
- 뿐만 아니라, 인천시는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임
- 또한 전월세 용자금 이자를 1년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연차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임

● 구리 사례

- 구리시는 올해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을 실시함(경기북부 탐뉴스, 2018)
-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은 경기도 내 합계 출산율 최하위권(1.03%)인 구리시의 난제를 극복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가치관 변화를 위해 마련한 것임
- 특히 구리시는 미래 사회 주역인 중·고등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하여 올해 7월10일 갈매중학교 2학년 355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을 시작했으며, 12일에는 동구중학교 322명, 17일과 18일에는 토평중학교 220명 총 89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은 수강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구교육 위탁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 장소에 강사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교육의 내용은 가족의 소중함 및 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하기, 생명 존중, 양성 평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음
- 구리시는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이외에도 향후 가치관 형성기인 초·중·고생 및 결혼 준비기의 직장인, 출산·양육기와 자녀 성장기의 부모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둥이 6남매 아빠로 유명한 VOS의 박지현 씨를 초빙하여 실질적인 인식 개선 교육의 장을 마련 할 예정임

● 충북사례

- 충청북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결혼·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옥천군을 시작으로 시·군 및 지역의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저출산 극복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괴산타임즈, 2018년,8월3일)
- 충청북도의 저출산 극복 시·군 릴레이 캠페인은 옥천군 지용제를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음

- 지용제 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실시한 인식개선 캠페인에는 충북도, 옥천군, 인구보건복지협회,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옥천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옥천군 새마을지회, 장애인 복지시설 청산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아빠의 육아 참여 및 일·가정 양립 실천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의 전범이 되고 있음
- 충청북도는 시·군 릴레이 캠페인이외에도 청년들의 만혼과 출산기피 등 인식개선을 위해 ▲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배포 ▲ 출산장려 정책 및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 홍보 ▲ 아이좋아 돌이좋아 홍보 풍선 나눠주기 ▲ '출산장려' 나의 한줄평 쓰기 등 캠페인을 전개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함(괴산타임즈, 2018년, 8월3일)

0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 계룡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점추진과제로 전개되어야 함

중점추진과제

<p>양성평등을 위한 남성 육아 인식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빠육아참여 활성화 계룡시민 이벤트, 학생을 대상으로한 인식교육 ● 찾아가는 결혼·가족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평등한 명절 문화 확산 ● 초·중등교사의 인식개선을 통한 미래 세대 인구 교육 	<p>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운동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사랑걷기대회」 개최, 첫돌 축하 사업, 아기사랑 북스타트사업,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유아용품 베품시장 개최, 첫 돌 축하 사업 추진 ● 계룡시 인구의 날 행사 개최 ● 지자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p>결혼장려 사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룡시 차원의 '작은 결혼식' 캠페인 ●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 확대 ● 결혼예비학교 개설 	<p>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량제봉투활용 출산장려 홍보강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전시회 및 홍보운동, 아기사랑 북스타트 운동 ● 계룡소식 아이날기 좋은 계룡 코너 운영, 출산장려 전광판, 계룡시 홈페이지 출산정보마당, 여성친화공모전

1. 남성 육아 인식 확산

- 아빠육아참여 활성화 계룡시민 이벤트 진행
 - ▶ 시기 : 연중
 - ▶ 내용
 - 아빠육아와 관련된 사진, 글, 영상 등에 대한 공모전 추진
 - 초보아빠 100인을 모집해 아빠육아 간담회 진행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및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 아빠육아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하는 ‘계룡사는 이야기’ 연재
 - ▶ 운영협조 : 계룡시청, 계룡시 공공기관 및 기업, 유관기관
- 학생을 대상으로 남성의 양육 참여에 대한 인식 교육
 - ▶ 시기 : 연 중
 - ▶ 대상 : 초 중 고 학생
 - ▶ 내용 : 계룡시 초중고 학교와 연계하여 양육과정에서의 남성 역할 교육
 - 남성의 부모 역할 및 양육의 중요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운영협조 : 계룡시 소재 초중고 학교
- 계룡시 인구특성(군 부대 등)에 맞는 찾아가는 결혼·가족 교육
 - ▶ 시기 : 연 중
 - ▶ 내용 : 계룡시 소재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실시
 - 교육내용 중 남성 공동 육아 및 다자녀 출산 유도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 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둘이 함께 자랄 때의 이점을 강조하여 다자녀 출산 유도
 - 계룡시와 연계하여 군인 대상 정신교육에 의무적으로 결혼·가족 교육 실시
 - ▶ 추진주체 : 계룡시, 군 부대, 인구교육 기관

● 평등한 명절 문화 인식 확산

▶ 시기 : 1년에 한 번 명절 전후에 실시

▶ 내용 : 여성이 불평등한 명절문화에 대한 계룡시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 실질적으로 성불평등한 명절문화로 인한 가족관계내의 갈등 및 문제 파악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성평등 명절문화 캠페인 실시간담회, 토론회, 슬로건 제작, 지역신문 기획기사 연재 등 사업 전개

▶ 운영협조 : 계룡시 여성단체

● 초·중등교사의 인식개선을 통한 미래 세대 인구 교육

▶ 시기 : 연 중

▶ 대상 : 계룡시 소재 초·중등교사

▶ 내용 : 계룡시 소재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결혼에 긍정적인 가치관 교육 실시

▶ 운영 협조 : 계룡시 소재 초·중등학교

●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

▶ 시기 : 연 중

▶ 대상 : 군 부대 소속 영·유아 양육하는 부모

▶ 내용 :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 및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관 방문을 통한 부모 교육이 어려운 대상으로 하여 찾아가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군부대를 대상으로 수요 파악 후 계룡시 차원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상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 혹은 발달단계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운영협조 : 지역단체, 지역복지관

2. 지역사회 저출산 극복 운동 전개

- 지자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구성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 ▶ 시기 : 연중
 - ▶ 대상 : 계룡시 지역 기업, 종교계, 시민단체 등
 - ▶ 내용 : 지자체가 참여하는 출산육아 협의회를 구성, 지역맞춤형 인식개선 사업 추진
 - 저출산 대응 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시민단체들과 공동목표 하에 협의회를 운영하고 연간 공동캠페인 및 릴레이캠페인 추진
 - 저출산 대응 종교계 공동캠페인 추진 : 계룡시 지역사회 종교기관과 연계하여 ‘청춘남여 결혼 시키기’ 사업을 공동 전개
- 「가족사랑의 날」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 ▶ 시기 : 인구의 날에 행사 개최
 - ▶ 내용 : 가족 프로그램 상시 운영으로 가족사랑의 날 활성화
 - ▶ 운영협조 : 계룡시 사회단체
- 유아용품 베품시장 개최
 - ▶ 시기 : 인구주간 기간에 행사 개최
 - ▶ 운영방법 : 중고 유아용품 베품시장 개최
 - 직원 및 여성단체 대상 재활용 가능한 유아용품 수집 활용
 - ▶ 운영협조 : 여성단체
- 『가족사랑 걷기대회』 개최
 - ▶ 시기 : 2019년부터 인구의 날에 시행
 - ▶ 장소 : 계룡시 소재 공원
 - ▶ 참여 : 가족단위 등 계룡시민 200명
 - ▶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가족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를 통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참여 유도
 - ▶ 연계기관 : 계룡시 산하기관, 여성단체

- 국민참여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

- ▶ 시기 : 연중

- ▶ 장소 : 계룡시 소재 공원 등, 유동인구 밀집 지역

- ▶ 내용 :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출산 시책 홍보물 배부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 ▶ 연계기관 : 여성단체 및 종교기관

-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 ▶ 추진시기 : 연중

- ▶ 내용 : 계룡시내 출생 신생아 가정에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3. 결혼장려사업 추진

- 계룡시 차원의 '작은 결혼식' 캠페인 실시
 - ▶ 시기 : 연중
 - ▶ 대상 : 결혼을 앞 둔 커플
 - ▶ 내용 : 작은 결혼식' 을 실천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계룡시에서 제작한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 인증패를 전달
 - 계룡시에서 매년 10쌍을 선정하여 '작은 결혼식' 행사 프로그램을 지원
 - 계룡시장, 지역 공공기관장 등 중심으로 주례
 - 종교계와 MOU 체결 등을 통해, 종교시설의 혼례식장으로의 개방 확대 및 감소한 혼례 참여 확산을 권장
 - ▶ 운영협조 : 계룡시 소재 종교기관, 시민단체
-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 확대
 - ▶ 시기 : 연중
 - ▶ 대상 : 결혼을 앞 둔 커플
 - ▶ 내용 : 계룡시청사를 비롯하여 지역 내의 자치단체 청사, 공공기관 청사, 문화시설, 공원 등을 결혼식장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권장
 - 공공시설의 예식장 개방 현황에 대한모니터링과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 역시 적극 홍보
 - ▶ 운영 협조 : 계룡시 산하 공공기관, 계룡시 문화시설
- 결혼예비학교 개설
 - ▶ 시기 : 연중
 - ▶ 대상 : 계룡시에 주소를 둔 결혼을 앞 둔 커플
 - ▶ 내용 : 부부의사 소통법, 애니어그램 검사, 부부 재정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개설
 - ▶ 운영협조 : 계룡시 소재 종교기관

4.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 사업

- 종량제 봉투' 활용, 출산장려 홍보 강화
 - ▶ 시기 : 2019. 1월 ~
 - ▶ 운영방법 : '10ℓ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에 출산장려 문안 인쇄 홍보
 - ▶ 인쇄문안 : '함께하는 출산문화, 젊어지는 희망 계통'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전시회 및 홍보운동 추진
 - ▶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및 서명운동 개최
 - 여성주간 기념식, 가족사랑 걷기대회, 등 홍보부스 운영 및 서명운동
 - ▶ '가족사랑 걷기대회' 개최
 - 부모, 아동 200여명 참여, 아빠육아 능력 인증시험 , 출산 시책 홍보 등
 - ▶ 각종 교육회의 등을 통해 출산장려 홍보 운동 추진
 - 보육교사 소양교육, 친절교육, 단체회의 활용 출산장려 홍보
 - ▶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 콘텐츠 제작
- 첫돌 축하 사업 추진
 - ▶ 시기 : 연중
 - ▶ 대상 : 2019년 첫돌 맞이 자녀를 둔 가정
 - ▶ 주요내용 : 아기 첫돌 맞이 축하 무료 사진 촬영권 증정
- 『아기사랑 북스타트 운동』 추진
 - ▶ 대상 : 2018년 출생신고 아동
 - ▶ 지원내용 : 북스타트 책꾸러미 증정 및 후속 프로그램 운영
 - 출생신고시 북스타트 꾸러미(그림책 2권, 손수건, 안내책자, 가방 등) 지급
 - 가족인형극 (상·하반기)

● 계룡소식 「아이낳기 좋은 계룡」 코너 운영

▶ 시기 : 2019. 1월 ~ 12월

▶ 운영방법 : 계룡소식지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코너」 고정 할애, 출산가정 부모의 사랑과 기쁨의 축하 메시지 및 출산시책 안내

▶ 주요내용

- 출산가정에 아기 사랑 축하메시지 게재
- 계룡시 우수 출산시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 게재

● 출산장려 전광판 홍보

▶ 시기 : 연중

▶ 장소 : 계룡시청 홀 전광판

▶ 운영방법 : 출산 장려 문구 출력을 통한 계룡시청 이용 주민 홍보

● 계룡시 홈페이지 출산정보마당 운영

▶ 시기 : 2019. 1월 ~12월

▶ 대상 : 출산을 앞 두고 있거나 영·유아를 둔 부모

▶ 운영방법 : 홈페이지 출산정보마당에 출산지원 및 홍보 자료 게시

● 계룡시 청사내 모유수유·착유실 운영

▶ 설치 : 계룡시청사 1층 『365일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 도서셋트, 유축기, 모음병, 저장팩, 물티슈 등 비치

▶ 사용대상 : 모유 수유자

●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시기 : 2019. 1월 ~ 12월

▶ 운영방법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

- 계룡시청 내 퇴근시간대 “가족송” 방송 및 관내업체 참여 독려

▶ 홍보 : 스마트플로우, 홈페이지, 계룡소식, 관내 업체 공문발송 등

- 계룡시 여성친화도시 공모전 실시
 - ▶ 시기 : 인구주간에 사업 실시
 - ▶ 대상 :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
 - ▶ 내용 : 여성친화도시, 폭력예방 등을 주제로 UCC 및 만화, 슬로건(표어), 정책 아이디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한 순수창작물 심사를 거쳐 시상
 - ▶ 추진주체 : 계룡시

06 홍보문구

- 계룡시 자체조사 선호하는 인구정책 구호 (318명 응답)

- 조사기간 : 2017. 10. 30 ~ 11. 20 (3주간)
- 조사대상 : 계룡시민 332명

순위	구 호	인원	비고
1	아이가 꿈꾸고 부모가 행복한 계룡	187	
2	아이 키우기 좋은 젊은 도시 계룡	73	
3	안전청정지역 · 살기 좋은 도시 계룡	56	
4	풍수지리적 대길지(大吉地) 계룡시	2	

- 고출산 시대 인구정책의 홍보문구

-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둘 낳기 운동에 참여합시다
- 40524837 삼천리는 초만원

- 초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의 홍보문구

- 가가호호 아이들셋, 하하호호 희망한
-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

- 계룡시에서 사용가능한 홍보문구

** 가가호호 아이들셋, 하하호호 희망한국(2009),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동생입니다(2010), 마음을 더하세요(2011~2013), 아이좋아 둘이좋아(2014), 육아하는 아빠가 멋있다(2015) 등

- 박상현. 2017.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강원연구원
- 이삼식 외 저. 2014. 인구관련 교과내용 실태와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문희. 2014. 작지만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연구.
- 최효미. 2017. 청년 미혼자에게 결혼이란.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외. 2017.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차우규. 201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 충청남도 공무원 교육원 발표자료.
- 충남리포트 225호 .2016. 2040 충남의 시군별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 경기북부탐뉴스. 2018. '구리시, 출산율 향상,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 업코리아 넷. 2017. '구리시, 출산율 향상, 찾아가는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실시 .
- 미디어. 다운 넷. 2018. 대구 달서구에 가면 결혼하기 쉽다.
- 매칭전략연구소. 2017. '결혼은 미친 짓 일까' 주제 토크 콘서트 개최.
- 충청투데이. 2018. 서천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공모전 실시.
- 경인일보. 2018. '인천시 결혼하기 좋은 도시 조성.
- 괴산타임즈. 2018. 충북도,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홍보 본격 가동.
- 행정안전부. 2016. 우수 저출산 지지체 사례모음.